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노벨상 사이트(노벨상 사이트 박물관) <http://www.nobel.se>



해마다 10월이 되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문이다. 1885년 11월 27일 썼던 알프레드 노벨(1833~1896년)의 유서에 따라 만들어진 노벨상은 1901년 12월 10일에 처음으로 시상식을 거행한 이후로 올해로 1백1주년이다.

첫 노벨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등 5개 부문에서 시상이 거행됐다. 노벨은 거의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과학의 발전,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문학을 위해 내놓았다. 이후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 1968년 은행설립 3백주년 기념으로 경제학상을 제정해 현재는 총 6개 부문에서 수상되고 있다.

1백년이 넘는 동안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상자를 발표하지 못한 1916년과 1940~1942년 몇차례를 제외하고 노벨의 사망일인 12월 10일이 되면 어김없이 노벨재단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찾아 노벨상을 수상해 왔다. 노벨 수상자들은 엄청난 상금을 받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많은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해 결과적으로 노벨상은 20세기 과학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노벨상 사이트에는 이와 같은 노벨상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크게 노벨과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총 7개 부분으로 나뉘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노벨 채널에서는 노벨 메달 및 상금 안내, 그리고 노벨 우표 등 노

벨상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그 다음으로 노벨상 제정의 가장 큰 공헌자인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전기 상세히 수록된 코너가 서비스된다. 그리고 노벨상을 총괄하고 있는 노벨재단에 대한 안내코너가 있다. 노벨상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둔 노벨박물관 코너도 함께 제공된다.

노벨 물리학상 채널에는 노벨 물리학과 관련된 기본정보 제공부터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 대한 약력 및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수상자의 사진은 기본이고, 수상자의 연구업적이 상세히 소개돼 있어 노벨상 수상내역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정보제공 코너가 되고 있다. 노벨 화학상, 생리학,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채널들에서도 물리학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대 수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와 연구업적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채널이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나 각 채널마다 제공되는 교육 코너는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문학상과 평화상 채널에서는 시상식 때의 수상자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상에서만 제공되는 노벨 포스터 페이지에서는 수상내용을 해마다 일러스트로 소개하는 포스터가 제공된다. 생리학상에서는 플래시를 이용해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게임처럼 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세포 순환, 혈액 순환 등을 플래시로 경험할 수 있다. DNA-RNA 단백질 페이지에서는 DNA와 RNA 등의 복제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DNA와 RNA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보통 노벨상 발표일은 10월 둘째주이나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노벨 의학상은 10월 7일, 물리학상은 8일, 화학상 및 경제학상은 9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평화상 수상자는 10월 1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발표되며, 문학상 발표 날짜는 전통에 따라 스웨덴 한림원이 추후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천만크로나(약 12억5천만원)를 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 및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상식 장면 등은 노벨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생중계된다.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대통령의 시상식 장면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노벨상이 주는 부와 명예가 엄청나다보니 이와 관련된 뒷이야기들도 많다. 노벨상에 수학이 빠진 이유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벨이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수학자인 미타그레플러와 삼각관계에 있어서 수학을 배제했다는 설과, 노벨이 이론과학에는 무관심해 실용과학이 아닌 수학이 배제됐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http://www.almaz.com/nobel/why_no_math.html 이 곳에 가면 노벨상에 수학상이 빠진 다양한 이유가 제시돼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는 여성 노벨 수상자에 대해서 인물별 연구업적 및 일대기도 함께 볼 수 있다. <http://www.almaz.com/nobel/women.html>

朴應緒 (동아사이언스 기자)